



# 화탑마을



발행일 : 2012. 04. 03  
발행인 : 운영위원장 김종원  
편집인 : 사무장 김병한

## 바우네 천원일기

2012년 4월 1일 일기  
날씨 : 맑음  
기온 : 15~25°C  
기후 : 맑고 햇살이 뛰어나다.  
기상 : 맑은 날씨로 화창한 하루를 보낸다.  
기후 : 맑은 날씨로 화창한 하루를 보낸다.  
기상 : 맑은 날씨로 화창한 하루를 보낸다.



## 작귀 살아나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화탑마을 홍보 이미지가 많아져 연구  
그룹 하나가 생겼다.



## 화탑마을의 꿈을 그리는가?

어떤 꿈을 그리는가?

## 화탑 마을 사업

<http://hwatop.co.kr>

## 화탑마을의 꿈을 소개한 프리젠테이션

바우는 빛 아래 나쁜마리를 죽여간다.  
나쁜마리를 죽이는 데 힘쓰고 있다.  
한미고을에서는 살터7가마이 이르니, 통찰에 뛰어온다.  
멀티 미디어 공간 곳에서 풍분을 털는다.



태의 전설에는 너른마리가 있었다.  
너른마리에는 세명 정도 들이끼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음복집 공간이 있다.  
술과 우거지지 않았던 60년대, 레이디들이 이불우리 계불우리 틀어다니던  
그 그림  
질출산, 무금산, 영산강을 흘러보면서 얘기 나눴던 곳이다.



〈세로 조성된 삵터〉

〈나길에 찾기 힘든 너른마리〉

대회장을 놔버리고 있었던 곳,  
옛 자리로 찾았다.  
그곳은 나길에 찾기 힘든 너른마리 찾는 어렵다.



## 마을의 미래

자연과 역사가 함께 숨 쉬는 화탑마을

2012년 4월 3일  
자연과 역사가 함께 숨 쉬는 화탑마을  
화성시 향리면 화탑리  
면적 45ha  
10년후 비전  
<http://hwatop.co.kr>

## 임진년 이런 일들을 합니다

2012년 사업 추진 계획  
마을의 문화구조  
화친연농조합 법인 해운  
의 도록 농민들이 사용  
하도록 만들기

hwatop.co.kr로 놀러 오세요^^



hwatop.co.kr로 놀러 오세요^^

## 화탑마을홈피

관광농원/휴양지에서 4위 기록(2012.04.03 현재)

화탑마을  
암소화우고기 인터넷으로 구입하세요!

1.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세요.  
화탑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축산을 구입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1,000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2.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주문은 월요일 배송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빼가 이를 이상 급듭니다.  
부득미, 월요일 배송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주문하신 고객은 화요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알기  
2012년 4월 3일 화요일 버  
3월 한우 28(바코드:00000249071, 사육농가:이경호)  
소미역추적사이트:<http://www.mtrace.go.kr>

01 마을소개  
제로 화탑마을을 소개 합니다.  
• 마을소개  
• 마을체험  
• 지역질병면역  
• 오시는길

02 마을체험  
제로 화탑마을을  
둘러보실수 있습니다.  
• 마을시설  
• 체험프로그램  
• 이용시설

마을갤러리  
HOME

길 61) 사업자등록번호: 412-81-34226 통신판매신고번호: 2010-전남나주-70  
개인정보취급책임자: 홍길동 마을사무장 김병현(010-7440-0568)

화탑마을 쇼핑몰 개설 : 116건 주문(2012.04.03 현재)

주문하세요^.^  
맛있어요~~~



# 마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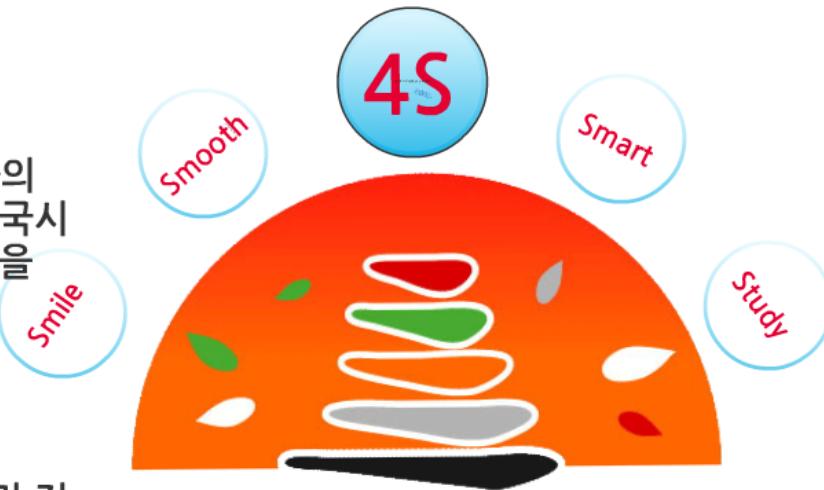
자연과 역사가 함께 숨쉬는 화탑마을

주민이 환하게 웃는 행복한 마을  
환경이 부드러운 이쁜 마을  
주민간 소통이 활발한 스마트한 마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스터디 마을

수차례의 운영위원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화탑마을의 비전을 결정했다. 화탑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함께했던 곳이다. 우리 마을의 비전을 Smile, Smooth, Smart, Study로 정했다.  
웃고, 아름답고, 소통 잘되는, 공부하는 마을!  
우리 마을의 10년후의 모습이다.

마을은 이런 비전을 갖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송제리 전체를 권역으로하는 권역개발을 신청중이다. 한편 친환경에너지를 주제로하는 친환경에너지체험학교도 접근하고 있다.

올해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태뫼생태를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자한다. 공부하는 생태마을 우리마을의 비전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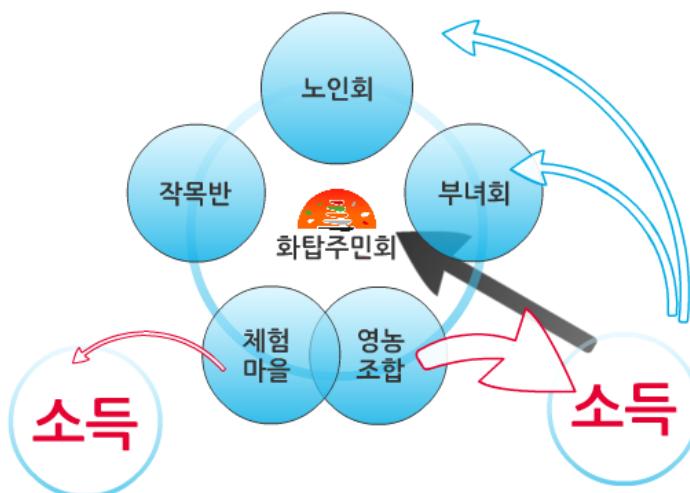


10년후 비전

<http://hwatop.co.kr>

# 임진년 이런 일들을 합니다

## 마을의 분배구조



## 2012년 사업 추진 계획

배나무과수체험, 태뫼생태체험 정착  
한우직판장 착한 가격 유지  
인터넷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매출 신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고용 확대  
연매출 목표 15억 달성  
마을 주민 대상 강좌(웃음강좌, 정보교육) 개설  
부녀회 등 소모임활동 활성화  
나귀사육시설, 나귀길 조성  
에너지체험교실 기반 조성

나귀  
온라인  
자전거  
그리고...



화탑영농조합 법인 매출  
의 5%를 주민들이 사용  
하도록 결정됐다.



# 바우네 전원일기

2012년 4월 1일 일요일

눈 뜨자, 가장 궁금한 것은 짹귀 상태.  
잠옷 바람으로 짹귀를 찾았다.  
다행이다.

狎귀가 막둥이와 나란히 웅크리고 있다.  
민들레를 넣어주니, 열심히 씹는다.  
자근자근 씹어대는 짹귀 모습이 귀엽다.

귀향과 더불어 우리집 최초 생명은 고양이였다.  
집수리 전에 고양이는 풍로 날개 속에 새끼를 낳았다.  
집수리를 위해 풍로를 옮기고, 인부들이 자주 들여다보  
니, 에미는 새끼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불쌍한 새끼 한마리만 남겨두고.  
남겨둔 어린 생명체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헛수고.  
결국 텃밭에 묻었다.

두번째로 집에 입식된 게, 토끼.  
종태아제가 세마리를 가지고 오셨다.  
돼지막을 급조해 마련된 보금자리에 살던 토끼들,  
두마리는 중간에 갔다.  
모두 실종이다.

## 狎귀 살아나다



한마리 남은 것이 가장 못난 귀돌이.  
큰 집을 혼자 지키던 귀돌이 곁에 거평당숙이 보내준 토끼 4남매가 입양되어 온다.  
그중 하나가 짹귀다.  
狎귀는 막둥이와는 사이가 좋은데, 재돌이와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나쁘다기보단, 재돌이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한다.  
해서, 재돌이만 남기고 막둥이와 짹귀는 이사했다.

어제, 짹귀의 행동이 이상했다.  
엉덩이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함께 살 때, 재돌이에게 물린 상처가 덧난 것이다.

바우댁 치료에 힘입어 소생한 짹귀를 보고, 귀돌이를 찾는다.  
귀돌이 아이들은 털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젖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귀돌이에게 밥을 한줌 더 올려 주고, 우리집 독재자 재돌이를 본다.  
멀뚱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재돌이.  
옆방에 지 자식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재돌이에게도 밥을 준다.  
물론, 양을 줄여서...  
힘이 넘치는 재돌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모습을 쭈욱~ 지켜보는 돌이(우리 사위는 '똘이'라고 부른다).  
저도 보리순 하나를 열심히 씹는다.  
돌인, 누가 뭘 먹으면 시샘나서 먹는다.  
샘이 많은 돌이는 봄이 되면서 바빠졌다.  
나비 형제들 방문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우리집 수문장 돌이는 불청객 나비들을 쫓기에 바쁘다.



태뫼 정상에는 너른바위가 있었다.

너른바위에는 세명 정도 들어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웅푹한 공간이 있다.  
숲이 우거지지 않았던 60년대, 메아리들이 이봉우리 저봉우리 돌아다니던  
그 시절.

월출산, 무등산, 영산강을 둘러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곳이다.



## 너른바위

<새로 조성된 쉼터>



← <낙엽에 쌓여 찾기 힘든 너른바위>



태뫼 정상, 너른바위가 있던 곳.  
옛 자리를 찾았다.

그곳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옛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바우는 돌이와 너른바위를 찾아간다.  
혁탑에서 돌이는 내 의도를 잘 간파한다.  
깔딱고개를 넘어 쉼터 가까이 이르니, 동창이 밝아온다.  
쉼터 미처 못간 곳에서 동편을 찍는다.

